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
알림바이블 대본집



성경에서 만나는 여성 04

화해의 여인, 아비가일

(사무엘상 25:2~44)

질투에 눈이 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
안달이 났던 이야기, 기억하세요?

사울왕을 피해 갈멜 근처 광야를 떠돌던
다윗과 부하들은 광야생활에 지쳐
허기진 날들이 많았어요.

자, 이 갈멜 지역에는 큰 목장을 하고 있는
나발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.
나발에게는 양이 3,000마리,
염소가 1,000마리나 있었답니다.

이렇게 부자인데도
나발은 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
모르기로 소문이 자자 했습니다.

때마침 양들의 털을 깎는 축제의 시기가 돌아왔어요.
이 축제 기간에는 먹을 게 아주 많았어요.
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던 옆집 이웃들도 집에 초대해서
넉넉하게 먹을 걸 나누곤 했죠.

그걸 알고 있던 다윗은 표정이 밝아져
젊은 부하 10명을 불러 말했어요.

**“너희는 나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.
전에 당신의 양치기들과 우리가 함께 있었을 때,
우리가 당신의 양들을 지켜주어
당신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.
이렇게 기쁜 축제 기간에 우리가 당신의 동네를 방문했는데
우리 젊은이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,
조금이라도 음식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”**

**다윗의 부하들은 모처럼 맛있는 음식을
먹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신나게 나발에게 갔어요.**

그런데 돌아온 나발의 말은 너무도
황당했지 뭐예요!

“아니, 먹을 걸 달라고?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?
요즘은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이 많다던데
그자도 그런 사람인가?

어째서 내가 왜 누군지도 모를 작자에게
우리 일꾼이 먹어야 할 빵과 포도주와 고기를
나눠줘야 한단 말이나?”

부하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
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.

**그리고는 나발 식구들과 싸우러 부하들 400명과 함께
갈멜로 올라갔어요.**

**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종 한명이 나발의 아내인
아비가일에게 급히 달려갔어요.**

**“아비가일님, 크.. 크큰일 났습니다!!
다윗의 부하들이 주인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
음식을 부탁했지만 주인님은 오히려 모욕만 주고
화를 내시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.**

**우리가 그 사람들 근처에서 양떼를 먹일 때
그들은 튼튼한 성벽처럼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해줬습니다.
그러니 고집만 부리는 주인님 때문에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
마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.”**

아비가일은 슬기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.

남편 나발과는 달리 지혜롭게
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.
아비가일은 바로 하인에게 대답했어요.

“너는 빨리 빵 200개와
포도주, 양고기, 곡식과 과일을 준비해라.
그리고 그걸 나귀에 실어라.
나는 뒤따라가겠으니 너희가 앞장서 가거라.”

아비가일은 속으로 생각했어요.

**“나발 그 사람이 또 어리석은 행동을 했군.
이러다간 나발 한명의 잘못으로 우리 가족 전체가
큰 위험에 빠지고 말겠어.
나발이 우리 가정을 지키지 못한다면,
내가 직접 나서서 지키는 수밖에 없어.”**

그리고는 남편 나발에게는 이 모든 걸 비밀로 하고
재빨리 나귀를 탔어요.
얼마쯤 갔을까, 저 멀리서
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오고 있었어요.

다윗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.

**“내가 정말 쓸데없는 짓을 했어.
밤낮 나발의 양떼들을 힘들게 지켜줬건만
나발 그 고약한 인간은 그걸 알아주지도
않을망정 화를 내다니.**

**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나발에 집에 사는
모든 남자들을 죽여 버리고 말테다”**

그런 다윗의 심정을 아는 듯, 아비가일은
다윗을 보자마자 재빨리 나귀에서 내렸어요.

그리고는 다윗 앞에 섰드려 애원했어요.

**“장군님, 부디 제 말씀 하나만 들어 주십시오.
제 어리석은 남편 나발은 이름 그대로 미련한 사람입니다.
하나님께서서는 장군님이 직접 피를 흘려
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셨습니다.
하나님께서서는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장군님을
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.
그러니 이 작은 일로 쓸데없는 싸움을 일으켜
후회하실 일이 없으시기를 원합니다.”**

분노에 사로잡혀 하마터면 하나님의 꿈을
잃어버릴 뻔 했던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
덕분에 자기가 누구인지, 자신이 해야 할 일이
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.

**“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보내셔서
이렇게 저와 만나게 하시다니,하나님께
찬양을 드립니다.**

**그대의 올바른 분별력 덕분에
내가 직접 사람을 많이 죽일 뻔 했소.
걱정 말고 평안히 돌아가시오.”**

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어요.

**“남편은 막무가내로 사고만 치는 사람 같은데,
아내는 남편이 하지 못하는 가정의 역할을 저렇게
나서서 하다니 책임감 있는 여인임이 분명하다.”**

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보니, 나발은 마치
왕이라도 된 것처럼
사람들과 호화로운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.

“자자~ 아비가일, 당신도 어서 와서 같이 즐기자고!”

나발은 앞으로 일어날 일도 모르고 철없는
아이처럼 흥청망청 먹고 마시기만 했어요.

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
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.
그리고 다음날, 아비가일은 술에서 깬
나발에게 어제 있던 일을 말했어요.

“나발, 사실은 어제 제가 다윗을 보러 갔었습니다..”

“뭐...뭐라고???”

**아비가일이 소식을 전하기도 전에 나발은 갑자기
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.**

**그렇게 나발이 쓰러지고, 하루, 이틀이 지났어요.
아비가일은 침대에 누운 나발을 돌보며
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.**

**“나발은 어떻게 되는 걸까? 다윗님은 정말 약속대로
우리 하인들을 죽이지 않으실까?”**

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나발은 영영 깨어나지 못한 채
삶을 마감했습니다.

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어요.

**“주께서는 터무니없이 나발에게 모욕을 당한 나의
억울함을 풀어 주셨다.**

**또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고,
나발의 악한 행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게 하셨도다.”**

**그리고 곧장 사람을 보내어 아비가일에게
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했죠.**

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한 뒤에
다윗에게로 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.

아비가일은 다윗과 결혼하여 ‘다니엘’이라는 아들을 낳고
이후에도 현명하게 아들을 길러냈어요.

수많은 식구를 위기에서 건져낸
용감하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기사는
정말 귀한 것이어서
성경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